

“K-컬처에서 아세안-컬처로”

文 대통령,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환영사에서 아세안·K컬처 동행 제안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한 아세안 국가를 향해 “K-컬처에서 아세안-컬처로 세계를 향해 함께 나가자고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내 프로그램인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환영사에서 “아세안과 한국이 만나면 아세안의 문화는 곧 세계문화가 될 수 있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1990년대 시작된 한류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 7위의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문화콘텐츠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 이상 성장하며 지난해 수출 100억 불을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어 “한류의 시작은 아시아였다. 가장 한국적인 콘텐츠를 아시아가 먼저 공감해줬고 아세안이 그 중심에 있었다”면서 “한국의 문화콘텐츠는 아세안의 사랑을 기반으로 세계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1978년 필리핀 가수 프레디 아길라가 모국어인 타갈로그어로 부른 ‘하냐’이라는 노래가 사랑받은 사례, 2010년 태국 아핏차퐁 감독의 영화가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사례를 들며 K-컬처와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 정상의 의미를 바닷길을 이용

했던 교류했던 과거 사례에 비유하며 환영 인사를 건넸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지금 겨울의 초입에 있다. 과거 동아시아는 여름의 남서풍과 겨울의 북동풍이란 계절풍을 이용해 바닷길을 오갔다”며 “북동풍의 계절은 동북아를 동남아를 향해 향하는 계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동남아로 향하는 관문 부산에서 한반도의 오랜 조상들이 그랬듯, 아세안을 만나는 살림으로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에 오신 아세안 정상들을 뜨겁게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문화콘텐츠는 이제 문화를 넘어 가장 유망한 성장 산업이다.

한국이 같은 문화적 정체성 위에서 아세안 문화콘텐츠의 동반자가 되겠다”면서 “오늘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기념해 마련한 문화혁신포럼도 내년부터 정례적으로 개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세안과 협력해 글로벌 문화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미래세대의 상호이해와 우정을 깊게 다지는 문화교류의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한·아세안 센터, 아시아문화전당, 역외 유일한 아세안문화원을 중심으로 아세안의 찬란한 문화를 알리는 ‘쌍방향 문화교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농산업경제위, 일자리경제국 예산 심사 실시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25일 제388회 정례회 기간 전북도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했다.

일자리경제국 2020년 세입예산은 올해보다 164억 7,842만원(전년대비 30.8%) 증가한 703억 795만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44억 2,573만원보다 480억 1,734만원이 증액된 2,024억 4,307만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강용구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꼼꼼히 분석해 예산 낭비 요인 등에 대해 질의했다.

강용구 위원장(남원2)은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운영에 관련하여 업소 현황 등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관리가 소홀함을 지적하고 행정에서의 관심 제고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철수 부위원장(정읍1)은 전통시장

여 세울 수 있도록 당부했다.

오광근 의원(전주2)은 전통시장 노후 전선 정비사업은 무허가 상점 등이 많아 화재 및 감전사고 등 위험에 노출된 전통시장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도내 5개 시장 외에도 향후 도내 많은 전통시장들이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강화하고, 나아가 전통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대책도 심도있게 고민하여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최영심 의원(비례)은 올해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신규 센터건립 사업이 많은데, 각각 센터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의 센터에서 총괄하여 교류하고, 연계성이 있도록 컨트론타워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하여 우수인력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우수인력 도내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이 지원사업 종료 후 우수인력이 수도권으로 이직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개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진성 기자

성윤모 “韓 기업 진출 급증할 아세안 국가 전략 타겟팅해 FTA 확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아세안에서 향후 우리기업 진출이 급증할 가능성이 큰 국가를 전략적으로 타겟팅해 자유무역협정(FTA)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부산 해운대의 벡스코에 마련된 메인프레시센터(MPC)를 찾아 국내 언론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동반자협정(CEPA)과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의 최종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언급한 뒤 이렇게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정상회의 계기에는 캄보디아와 FTA 추진에 대한 공동연구 개시를 선언하고, 1년간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해 협상 추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에 필리핀·말레이시아와 FTA 최종 타결을 매듭짓는다는 방침이다. 인도네시아와의 CEPA도 회의 기간 최종 타결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와의 CEPA가 최종 타결되면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교역량이 많은 상위 3개국(베트남·싱가포르·인도네시아)과 모두 양자 FTA를 체결한 셈이 된다. 이른바 ‘포스트 베트남’ 일환으로 나머지 7개국 가운데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 위주로 순서대로 FTA를 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성 장관은 이날 초 태극 방콕에서 열린 제3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에서 거둔 15개국 사이의 협정문 타결 결과에 대해 “세계 최대 국가가 참여하는 무역 투자 규범을 마련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한·아세안 FTA와 더불어 RCEP 타결을 통해 다자 FTA 네트워크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양자 FTA 네트워크 확대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장관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 가운데 산업부 주관의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 설립,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 추진 등을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아세안은 경제발전 및 기술발전 단계가 상이한 10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협력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령, 싱가포르와 같이 기술력이 확보된 국가와는 공동연구와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베트남과 같이 우리기업들과의 GVC연계가 활발한 경우, 현지기업의 기술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술지도사업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 장관은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로 아세안과 한·아세안 산업혁신기구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며 “온·오프라인 협력 플랫폼 구축, 전문가 그룹 구성·운영 등을 통해 기술발전에 따라 달라지는 기술협력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산업혁신기구를 유럽연합(EU)의 ‘유레카’와 EEN(기업매칭 전문 네트워크)과 같은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기술협력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자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표준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아세안 표준화 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4차 산업분야 표준을 한국과 아세안이 함께 마련해 나간다면 한·아세안 간 무역을 보다 원활하게 하고 미래시장을 함께 창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뉴스

‘윤준병의 파란주전자 이야기’ 출판기념회 성황… 소신과 신념, 정읍고창 발전 담아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이 지난 24일 오후 2시 정읍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윤준병의 파란주전자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출판기념회는 국민의례와 내빈소개를 시작으로 축하인사와 축하영상, 책 소개 영상에 이어 ‘저자와의 대화’, ‘시민과의 대화’ 등 북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출판기념회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서울 중랑구 을)의원, 유상엽(정읍·고창) 대안신당 대표, 유진섭 정읍시장, 최낙삼 정읍시의회 의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과 정읍·고창 시의원·시민 등 1천 5백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소병훈(경기도 광주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하 동영상 보내왔으며 이외에도 많은 인사들이 축하 화환과 축전을 보내 윤 위원장의 출판기념회를 축하했다.

저자와의 대화에서 윤 위원장은 “주 전자는 공직에서의 신념과 정치인이 갖춰야 할 덕목을 모두 생각나게 한다”고 전제하고 “주인의식과 전문성, 자신 있게 일하는 추진력이 공직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지역위원장이 지난 24일(일) 오후 2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윤준병의 파란주전자 이야기’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필요한 덕목이라면 고개를 숙이는 겸손과 소통, 혁신적인 사고와 뜨거운 난로 위에 나를 올려놓는 용기를 주 전자에게 느끼기 때문에 이와 닮은 주전자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했다.

윤준병 위원장은 정읍 입암면에서 태어나 대흥초와 호남중, 정주고, 서울대와 동 행정대학을 나왔으며 서 울시립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82년 제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하여 1984년부터 1989년까지 전북도청 행정사무관을 거쳐 서울특별시에서

2019년 퇴직할 때까지 36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관악·은평구 부구청장, 서울시 교통본부장·기획실장과 차관급인 행정1부시장을 지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출마한 박원순 시장을 대신해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맡았었다.

제1회 서울정책인대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는 ‘서울을 바꾼 교통정책 이야기’와 ‘윤준병의 파란주전자 이야기’가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